“KIA 불펜은 강하다…더 성장하도록 돕겠다”

‘행복한 시즌’ 보낸 KIA 이동걸 불펜 코치

선발진 줄부상 이탈 악재 속
마무리 정해영 부재 컸지만
필승조 덕분에 위기 넘겨

선수들 ‘일희일비’ 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며 커 나가길

KIA 타이거즈의 이동걸〈사진〉 불펜 코치가 “100m 신기록을 달성했다”며 활짝 웃었다.

올 시즌부터 KIA의 불펜 코치로 함께 한 이동걸 코치는 우승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다. 이동걸 코치는 “불펜에서 덕아웃까지 100m 신기록 될 정도로 뛰었다. 코치님들이 ‘너 덕아웃에 있었어?’라고 말할 정도로 번개같이 뛰었다. 너무 행복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마무리 정해영 덕분에 놀라운 스피드를 발휘한 이동걸 코치, 올 시즌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도 정해영이 있었다.

KIA는 올 시즌 선발진이 무려 4명이나 부상으로 이탈하는 초대형 악재를 겪었다. 불펜에서 뒷심 싸움을 이끈 이동걸 코치 입장에서는 선발진 공백도 컸지만 마무리 정해영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 코치는 “벤치에서 선발진 부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불펜에서는 정해영이 빠졌을 때가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전상현이 너무 잘 해줬다”며 “기본적으로 필승조 라인이 잘 구축돼 있었다. 어떤 한 명이 빠지더라도 장현식, 전상현, 곽도규, 이준영 이런 선수들이 어려운 경기들을 잘 막아줬다”고 언급했다.

정해영의 부상 복귀로 후반 싸움을 만들어 간 이동걸 코치, 하지만 6~7월 부침의 시간도 있었다.

이 코치는 “중간에 6~7월에 부침을 겪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선수들도 본인을 더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한 번 안 좋았을 때,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본인을 의심시키는 것보다는 ‘가장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나간다’라는 믿음을 주면 선수들이 한 번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또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 많이 노력했는데 선수들이 잘 극복해 줬다”며 위기 후 선수들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이 코치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오늘’이다.

이 코치는 “선수들이 뭘 해야 할지를 먼저 정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즌 초보다 말미에, 시리즈 준비할 때도 많이 좋아졌던 것 같다”며 “선수들이 힘을 쓰는 날과 쓰지 않는 날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창의성이 올라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하루하루 결과에 대한 싸움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또 잘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나를 의심한다. 그 다음날 나가서 연습할 때 끊임없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정확한 스케줄과 정확한 루틴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프로선수로서 한 시즌을 보내는 방법에서 선수들이 발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초심’으로 2025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KIA에는 ‘장현식 이탈’이라는 변수가 있다. 이 코치는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미래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 코치는 “캠프가 힘든 게 같은 연습을 계속하니까 본인하고 싸우게 되는 시간이 많다. 시합을 하면 결과에 대해 흡족함도 느끼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연습은 오늘 잘 되다가도 내일 안 되면 나한테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며 “캠프에 온 선수들은 아직 결과를 낸 선수들이 아니니까 본인하고 싸우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았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 가진 장점을 부각하고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은 ‘실전’이었다.

이 코치는 “팀에 유망주 선수가 정말 많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1군의 경기장 환경이라든가, 압박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의 공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연습량도, 선수를 몰아붙여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고,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면서 결과가 나오다 보면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행복한 시즌’이었다고 말하는 이 코치, 세심하게 선수들과 소통했던 만큼 함께 하지 못한 선수들을 떠올렸다.

이 코치는 “KIA 마운드는 강했고, 선수들도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한 시즌 너무 행복했다”면서도 “시리즈에 한 번도 못 나간 선수들도 있었다. 준비도 잘 됐고, 컨디션도 다 좋았다. 마지막에 불펜에서 일렬로 어깨동무하고 기다렸는데, 못 나간 선수들에게 고맙기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144경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선수 중에서 엔트리에 못 든 선수들도 있다. 그 선수들의 노고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3일 중국 상하이 하이강을 상대로 24-25 ACLE 리그 스테이지 6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장신 공격수 허율(오른쪽)을 앞세워 상대의 ‘공중볼 약점’을 뚫을 계획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아챔리그 16강 ‘9부 능선’ 넘는다

‘4승 1패’ 2위…오늘 상하이 하이강 원정 승리 땐 사실상 확정

상하이 ‘공중볼 처리’ 약점 노출…장신 공격수 허율 활약 주목

광주FC가 2024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6강을 노린다.

광주는 3일 오후 9시 중국 슈퍼리그 우승팀 상하이 하이강과 24-25 ACLE 리그 스테이지 6차전 원정 경기에 나선다. 내년 2월 11일과 18일 두 경기를 남겨두고 펼치는 올 시즌 마지막 경기다. ‘16강’ 9부 능선을 오르기 위한 경기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달 27일 상하이 선화와의 홈경기에서 투입과 함께 골을 장식한 아사니의 활약으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4승 1패(승점 12)가 된 광주는비셀 고베(4승 1무·승점 13)에 이어 동아시아리그 2위에 올라있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 15점이 되면서 두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16강을 확정할 수 있다.

상하이 하이강(승점 7)은 현재 16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광주다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대표’ 타이틀을 더한 수문장 김경민을 필두로 변준수, 김경재, 안영규 등의 센터백이 안정적 활약을 펼치면서, 광주는 최근 3경기에서 단 1실점만 했다.

앞선 상하이 선화전에서 아사니의 골을 도왔던 허율이 공격 전면에 선다. 허율은 앞선 경기에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머리와 다리로 부지런히 공세를 펼치면서 도움을 기록했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흔들고, 기회를 만들었던 최경록에도 시선이 쏠린다.

상하이 하이강은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슈퍼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강팀이다. 전북현대 출신의 공격수 구스타보와 함께 중국 간판 공격수 우레이, 영국프리미어리그 출신 오스카 등 스타 플레이어들 포진해 있다.

또 앞선 울산현대와의 ACLE 5차전에서 해트트릭을 장식한 바르가스도 있다. 상하이 하이강은 바르가스의 활약으로 울산전 3-1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공중볼 처리’라는 상하이 하이강의 약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앞서 상하이 하이강은 공중볼 처리 과정에서 위험 상황을 자주 노출했다. 그만큼 장신 공격수 허율의 역할이 중요하다.

횡패스도 취약하다는 점을 공략할 필요도 있다. 정호연과 최경록이 정확한 크로스 패스를 앞세워 이 빈틈을 파고들 계획이다.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도전하고 있지만 올 시즌도 광주에는 힘겨웠다.

구단 재정 건전화 문제로 여름 이적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이스’ 엄지성의 유출이 있었다. ACLE 승전보를 연달아 전하고도, ‘절차상 문제’라는 이유로 예산이라는 칼을 쥔 광주시의회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광주가 험난했지만 빛났던 도전의 시즌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암 ‘씨름 괴물’ 김민재, 천하장사 등극

‘위더스제약 씨름대축제’ 제패…올해 7차례 등 통산 14번째 장사

‘씨름 괴물’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사진)가 안방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인생 두 번째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김민재는 지난달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영암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천하장사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재는 지난 1일 5판3선승제로 치러진 장사 결정전에서 울주군청의 김지율을 3-0으로 완파하고 당당히 왕좌에 올랐다.

그는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에서 밀어치기로 2점을 챙긴 뒤 세 번째 판에서 들배지기 기술로 상대를 눕혔다.

김민재는 8강에서 최성민(태안군청)에 2-0 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다.

그는 준결승에서 만난 김찬영(정읍시청)에 들배지기로 첫 판 1점을 따냈지만 덧걸이로 두 번째 판을 내주며 승부는 원점이 됐다. 마지막 판에서 잡채기를 성공시키며 2-1승을 기록했다.

울산대 2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22년 혜성처럼 모래판에 등장한 김민재는 당시 단오장사대회에서 백두급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2022년 이 대회에서 1985년 이만기 이후 37년 만의 대학생 천하장사에 오르며 모래판을 들썩이게 했다.

김민재는 “제일 큰 대회인 천하장사 대회에서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해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준결승에서 두 번째 판 점수를 내줬을 때 ‘나에 대해 많이 연구했구나’ 싶어 위기 의식이 생겼고, 반대로 천하장사 결정전 두 번째 판까지 승리했을 때 상대의 기세가 꺾인 것을 보고 우승을 확신했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문경장사대회·단오장사대회·보은장사대회·삼척장사대회·추석장사대회와 전국체전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올해 7번째 장사, 통산 14번째 장사(백두급 12회·천하장사 2회)에 올랐다.

그는 “가장 높은 체급이다보니 근력 단련을 우선 신경쓰고, 실전에서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목표가 그랜드슬램 달성과 천하장사 등극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추석대회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목표를 모두 이뤘다”며 “이제 이태현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교수님의 백두급 최다 우승 20회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정진하겠다. 매년 신인선수의 마음으로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씨름에 임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영암민속씨름단 이동혁은 소백급 공동 5위, 장영진·남우혁은 각각 태백급 2위·5위, 차민수는 한라급 공동 5위, 최정만은 금강급 2위를 기록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장흥서 전국실업배드민턴연맹전 개막

‘올림픽 은’ 전남 정나은 등 100여명 참가

‘2024 전국실업배드민턴연맹전’이 2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막했다.

오는 8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배드민턴협회와 장흥배드민턴협회가 주관했으며, 대한배드민턴협회, 장흥군, 장흥군체육회가 후원했다.

이번 실업연맹전에는 관공서 남·여 일반부 총 11개 팀(화순군청, 화성시청, 영동군청, 포천시청, 김천시청, 이천시청, 고양시청, 광명시청, 충주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단체전 및 개인전(남·여단식, 남·여복식, 혼합복식)으로 구성되며 개인전은 1인 2종목까지, 1개팀에서 단식8명, 복식4조까지 출전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나은을 비롯해 유아연, 정다연, 공여진, 김민솔, 김보민, 장민윤(이상 화순군청)이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화순군청은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부전승으로 4강에 올라, 3일 오후 1시 결승 진출을 두고 김천시청과 대결을 펼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